



재외동포청, 지진 발생 미얀마 한인사회 지원에 적극 나선다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지난 3월 28일에 발생한 미얀마 강진과 관련하여 피해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및 구호품 등 미화 3만 달러 상당을 지원한다.
- 재외동포청은 작년 2월 「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」을 제정하였으며, 지난 11월에는 이 지침에 따라 태풍으로 대규모 단전 사태가 발생한 쿠바 동포사회에 발전기를 지원했다.
- 재외동포청은 미얀마 지진 발생 후 미얀마한인회장 및 현지 공관과 협력하여 재외동포 피해 상황과 구호품 수요를 파악하였으며, 이번 물품 지원 이후에도 현지 실정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.
- 이상덕 청장은 “한인회와 현지 우리 공관의 협조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했다”라며, “이번 지원으로 미얀마 만달레이 및 네피도 지역 지진 피해 동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, 동포청은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동포분들이 위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이 규 현	032-585-3172
		담당자	사무관	신 상 철	032-585-3252